

강진다산박물관 올해 입장객 6만명 돌파

‘누구나 반값 강진여행’ 관광정책 2025년 5월까지 자산어보 특별전 조선시대 해양생물학 가치 재조명 유채꽃밭 조성 등 불거리 제공

강진군 다산박물관 올해 입장객이 11월 기준 6만명을 돌파하며 지난해 기록인 5만8000명을 넘어섰다. ‘누구나 반값 강진여행’ 관광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풀이된다. 단체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도 꾸준히 찾고 있어 생활인

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27일 강진군에 따르면 다산박물관은 조선시대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유물 전시공간으로 현재 유물 100점이 전시돼 있다.

관람객들은 유물을 통해 다산의 학문적 업적과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의 공간으로 만난다.

다산박물관은 내년 5월 11일까지 ‘자산어보 특별전’을 열고 있다.

특별전은 정약전 선생의 저서 자산어보를 주제로 조선시대 해양생물학의 가

치를 재조명하고 있다. 다산 선생과 동시대의 학문적 업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배움을 선사하고 있다.

올해는 관람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박물관을 즐길 수 있도록 3ha규모 야외 잔디광장과 수목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실내·외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유지했으며 다산을 모티브로 한 포토존도 새롭게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내년에도 박물관 주변에 유채꽃밭을 조성해 봄철 관람객들에게 불거리를 제

공할 계획이다. 현재 유채 파종과 관리가 진행 중이다.

박물관 앞 부지에 20억원 규모의 애절양 공원을 내년에 착공한다. 조형물과 탐방로 조성이 끝나면 총 5ha 규모의 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다산박물관 관계자는 “늘어난 입장객 수는 박물관의 노력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고흥물’ 4대 운영전략 방향 제시 공영민 고흥군수, 애로사항 청취

고흥군은 최근 풍양면 ‘고흥물’ 사무실에서 군 농수산물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가속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2025년 고흥물 운영전략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회의는 공영민 군수 주재로 열렸으며, 고흥물의 운영전략을 정립하고, 향후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특히, 공영민 군수는 고흥물 직원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현장 중심 마케팅을 펼쳐 줄 것을 당부했다.

2025년 고흥물 4대 운영전략으로는 △ ‘고흥물’만의 대표상품 개발 △ 판매 품목 다각화를 통한 생산자 양성 △ 고흥사랑 기부 답례품 발품 △ 적극적인 고흥물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고흥군 농수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고흥물은 농어민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확 시기와 생산량에 맞춘 유통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제값에 적시에(제시기에) 판매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건강기원 장수사진 촬영 순천시 왕조2동 어르신 60명 대상

순천시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중물보장협의체는 지난 25일부터 5일간 지역 후원업체인 아침햇살스튜디오에서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을 촬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장수사진 대상은 노인 친목 활성화에 기여한 경로당 회장과 독거노인, 취약계층 어르신이며, 사진 촬영 후 예쁘게 보정하여 액자에 담아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특화사업에 지역 사진관인 아침햇살스튜디오의 후원으로 추진되었으며, 왕조2동 마중물보장협의체 위원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사진관으로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장수사진을 촬영한 어르신은 “자식들의 성화에도 그동안은 영정사진이라서 찍기 싫어 미뤘었는데 오늘 장수사진을 촬영하여 미뤘었던 숙제를 끝마친 것 같고 자식들에게도 짐을 덜어준 것 같아 즐거분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와 마중물보장협의체가 지난 25일부터 5일간 지역 후원업체인 아침햇살스튜디오에서 어르신 60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순천시 왕조2동 행정복지센터 제공

순천만국가정원, 드론라이프쇼 30일 스페이스허브 일원서 개최

500대 드론이 빛어내는 장엄한 드론라이프쇼가 국가정원 스페이스허브 일원에서 ‘하늘에서 빛나는 정원’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국가정원 서문의 대표공간인 스페이스허브와 아름다운 WWT습지를 배경으로 개최되는 이번 드론쇼는 아날로그 정원 위에 디지털 콘텐츠가 더해져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야경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재개장 이후 4백만 명이 가까운 관람객이 찾은 만큼 많은 관심을 받아 온 국가정원의 대표 콘텐츠인 호수정원, 스페이스브릿지, 스카이크루, 캐릭터 등이 밤하늘을 누비는 수많은 불빛들을 통해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예술인들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과 테라피가든에서 운영되었던 아로마톤, 미스트 제작 등의 체험프로그램 등이 준비되어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행사 당일 공연이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는 국가정원 입장료가 면제되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순천만국가정원 공식 SNS 채널 및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여수시, 2024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최우수상’

실무자·전문가 등 300여 명 참석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포럼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국 17개 시도 세정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등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세 연구과제를 발표하고 지방세 제도 및 정보화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지방세 관련 최대 규모의 행사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여수시 세정과 양민정·양하영 주무관은 ‘납세의무에 잡자는 자, 사전 안내문으로 깨워드립니다’라는 주제로 연구과제를 공동 발표했다.

이들은 일반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잘 알지 못해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점에 착안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가산세를 포함한 징수·채납에 따른 불



여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개최된 ‘2024년 전국 지방세 발전포럼’ 발표대회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여수시 제공

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납세자 편의와 신고납부율 제고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제도개선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세정서비스를 확대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세무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여수=이경기 기자

장흥경찰,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안전강화 협약

장흥경찰서(서장 박흥원)는 지난 25일 군민의 안전과 실종자 조기 발견 등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지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으로 치매노인 등 실종을 조기 발

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성해 안전한 장흥 치안을 확보하기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동협의체는 치매노인 등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비상 공조체계 구축, 장흥댐 우범지역 및 산간지역 수색에 대한 드론, 행정선 지원 등 주민참여 치안의 일환

으로 치안 인프라 확대를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흥원 서장은 “치매노인 등 실종자 특성상 초기 집중 수색을 통한 골든타임 내 발견이 중요하나 경찰의 수색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공동대응협의체와 협업으로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종 치매노인을 조기 발견하는데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고흥군 어깨동무봉사단, 도화면 발포마을서 해단식

고흥읍 호형리 동촌마을에서 힘차게 출발한 어깨동무봉사단이 27일 도화면 발포마을을 끝으로 올해 봉사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진)

어깨동무봉사단은 2007년에 처음 시작하여 이날까지 총 253회를 운영한 고흥군을 대표하는 최장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2024년 한 해에만 18회를 운영하여 군민들의 동반자 노릇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25개 봉사 분야에서 우편함 달아주기, 소화기 및 안전 손잡이 설치, 태양광 센서등 설치 등 6개 분야를 추가하여 총 30개 봉사 분야에 17개 기관·단체와 개인 봉사자 등 6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봉사 현장을 방문한 공영민 군수는 “초봄부터 겨울까지 본인의 생업을 뒤로 하고 동참해 준 어깨동무봉사단원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고흥의 어르신들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끼며 건강하게 오래 사시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욱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심정우 기자